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로마서 영맥풀이

영적 파산과 법정적 무죄 선언

"인간의 도덕적 위선과 종교적 자만을 꺾고,
영적 부도 상태에 놓인 죄인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천국의 새 법안입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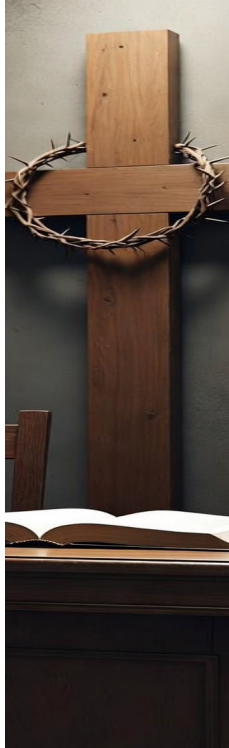
목 차 CONTENTS





서 론	로마서 개요 _ 4
제 1 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_ 13
제 2 장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_ 25
제 3 장	예수님의 은혜 _ 37
제 4 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_ 49
제 5 장	아담의 저주 파기 _ 62
제 6 장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_ 75
제 7 장	생명의 성령의 법 _ 88
제 8 장	토기장이와 진흙같은 나 _ 101
제 9 장	삶의 영적 리모델링 _ 113
제 10 장	하나님의 명문 가문 _ 125





서론

/

로마서

개요

서론 로마서 개요

도입내용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섰던 로마 제국의 한복판을 향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예수님의 승리 선언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너희 집안은 평생 힘들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라며 매일 불행의 청구서를 내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그 청구서를 흔적도 없이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전수받아 우리 가문의 흐름을 어둠에서 빛으로 180도 바꾸어 봅시다! (롬 1:16)

1. 복음의 진짜 뜻: 황제의 가짜 힘을 박살 내는 폭탄 능력

가. 진짜 기쁜 소식이 나타났다

- 1) 바울이 살던 시대에 '복음'(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쓰던 대단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당당하게 빼앗아 와서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시라는 엄청난 폭탄선언을 던집니다 (롬 1:1-3).

나. 집안의 나쁜 흐름을 폭파하는 힘

- 1)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롬 1:16). 이 능력의 진짜 뜻은 건물이나 바위를 한 번에 부숴 버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 2)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대대로 우리 집안을 괴롭히던 아픔, 가난, 짜증, 다툼 같은 나쁜 기류들이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 로마서의 4단계 이야기: 빵점짜리 인생에서 왕의 자녀가 되기까지

가. 1단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고백 (1~3장)

- 1) 나쁜 짓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종교인이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백전백패 빵점짜리 죄인일 뿐입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하신 말씀처럼 내 힘이나 내 착한 행동으로는 구

[롬 1:1-3]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정직한 행복'을 하는 단계입니다 (롬 3:10).

[롬 3:10] 기록한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 2단계: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엄청난 빛 (4~5장)

- 1) 빛 때문에 감옥에 갇힌 노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라는 엄청난 전 재산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완전히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3:24).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2) 첫 조상 아담이 물려받은 불행의 노예 계약서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멋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롬 5:17).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 3단계: 나쁜 과거와의 완벽한 이혼식 (6~8장)

- 1)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영적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6:4).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옛날의 나쁜 주인(죄)과는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2)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새롭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롬 7:4).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작동하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죄인이라고 부르며 괴롭힐 수 없습니다 (롬 8:1-2).

라. 4단계: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진짜 멋진 삶 (9~16장)

- 1)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등 위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듯,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 퍼센트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 2)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9:2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도구로 드릴 때, 우리 가문은 역사에 남을 멋진 믿음의 명문가로 바뀝니다 (롬 12:1-2).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3. 구속사의 위대한 결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

는 하나님

가. 죄의 장부를 하얗게 지우신 하나님

- 1) 로마서에서 가장 가슴 벅찬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의 장부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 2)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인 빛이 0원으로 완전 탕감되었습니다 (롬 4:8).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 원수의 뼈를 박살 내는 통쾌한 승리

- 1)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아주 신나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포하십니다 (롬 16:20).
- 2) 여기서 '상하게 하신다'는 말의 진짜 뜻은 마귀의 뼈를 완전히 '으스러뜨려 박살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를 믿고 당당하게 외칠 때, 우리 집안을 맴돌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즉시 도망치게 됩니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전 점검: 마음의 안테나를 예수님께 맞추기]

- 우리 집안의 힘든 형편이 아무리 커 보여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한 번에 다 바뀔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나요? (롬 1:16)
- 마귀가 물려준 불행의 노예 계약서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찢겨서 쓰레기통에 들어갔음을 인정하나요? (롬 5:17)
-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의 영적 파수꾼(대장)으로 임명하셨음을 믿고,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 버릴 용기가 있나요? (롬 16:20)

[오늘의 큰소리 선포]

-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 오늘부터 나와 우리 집안의 진짜 등기부등본이 되었다!" (롬 8:1)
- "가난과 질병, 다툼의 나쁜 기류가 우리 집에 청구하던 모든 불행의 계약서는 예수 이름 앞에 영원히 찢어졌다!" (롬 8:2)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5:17] 한 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나는 우리 집을 지키는 천국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마귀의 대가리를 내 발밑에서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롬 16:20)

[파수꾼의 기도]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라는 이 쉽고도 엄청난 비밀 노트를 우리 가문과 내 마음에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 조상들부터 흘러내려와 나를 기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모든 나쁜 버릇과 가난, 질병의 플러그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롬 5:14).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이래”라며 핑계 대던 못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롬 3:27), 오직 예수님의 피로 “너는 이제 최고로 깨끗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만 내 마음의 안테나에 꽂고 정합니다 (롬 3:24).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령님의 착한 법이 우리 집 안방과 거실을 가득 채우게 해 주세요 (롬 8:2). 나 한 사람의 멋진 순종을 시작으로, 내 미래의 자녀들과 후손 천 대까지는 오직 아브라함이 받았던 멋진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만 홍수처럼 쏟아지게 해 주세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 박살 내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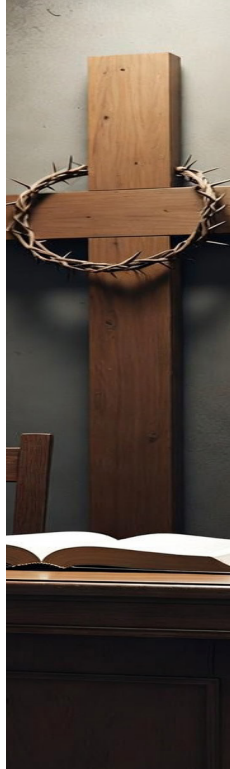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 1 장

/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제1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도입내용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섰던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며, 오직 황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진짜 구원자다!"라고 외치며 황제를 가짜 신으로 섬기던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황제의 무서운 감시를 피해 지하 동굴(카타콤)에 꼭꼭 숨어 숨죽여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 한복판을 뚫어버리는 멋진 폭탄선언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며,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집안을 가로막는 세상의 무서운 압박 Swans 묶임을 단번에 터뜨려버리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이 첫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롬 1:16)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로마 황제의 언어를 뒤집는 예수님의 선언

가. 황제의 소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완벽한 종'의 정체성

(1) 마귀가 들이밀던 옛날 노예 문서의 파기

-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의 종<둘로스>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롬 1:1).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3명 중 1명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시대 법에 따르면 노예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 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그런데 고대 로마법을 깊이 파보면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노예가 밖에서 진 빚이나 잘못은 모두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합법적으로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부른 것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권리는 새 주인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옛날 죄의 빚을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내 새 주인인 예수님께 가서 따져라!" 하고 선포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2) 황제의 특사보다 더 당당한 예수님의 진짜 대사

- 바울은 자신이 '사도'<아포스톨로스>로 임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롬 1:1). 옛날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왕이나 황제의 명령을 가득 담은 공식 외교 문서를 들고 당당하게 걷어가는 '왕의 전령(특사)'을 뜻하는 아주 묵직한 단어였습니다.

- 바울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군대나 총독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천국 대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집안을 위협하며 기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세상 형편에 쫓아버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천국의 전권을 쥐고 있는 진짜 대사라는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나. 돌판에 새겨진 황제의 가짜 복음을 부수는 진짜 복음의 충돌

(1) 세상 가짜 복음을 깨뜨리는 하늘의 진짜 기쁜 소식

- 바울이 외친 '복음' <에반겔리온>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태어났거나, 황제의 아들이 어른이 되었거나,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만 부르던 황제 전용 단어였습니다 (롬 1:1).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의 돌판(프리에네 비문)을 찾아보면 "황제가 태어난 날이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에반겔리온)의 시작이다"라고 똑똑히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황제가 독점하던 이 단어를 합법적으로 빼앗아 와서,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류를 건지는 진짜 복음이라고 로

마 한복판에서 외치며 세상의 기류를 뒤흔들었습니다.

(2) 불행의 흐름을 폭파하는 부활의 에너지

-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롬 1:16). 옛날 헬라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힘이 아니라 번개가 치거나 군대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물리적 파괴력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쿵 하고 터지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 집안을 꽁꽁 묶고 있던 마귀의 덫과 대대로 물려받은 질병, 가난의 기류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는 초자연적인 진짜 힘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거두신 완전한 법정 승리

가. 다윗 왕의 혈통과 부활로 입증된 메시아의 진짜 통치 주권

(1) 인간의 몸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완벽한 두 가지 증거

-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 이유를 두 가지 멋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롬 1:3-4).

롬 1:3-4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여기서 '육신으로는' <카타 사르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합법적인 다윗 왕의 자리를 이어받으신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고, '성령으로는' <카타 프뉴마> 죽음의 지옥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신 하늘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2) 지옥의 참소를 기각시키는 천국의 무죄 선언

- '인정되셨으니'라는 말의 원래 숨은 뜻은 땅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거나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선언하다' <호리조>입니다 (롬 1:4).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마귀가 더 이상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천국의 거룩한 영적 경계선을 완벽하게 그어버린 최종 승소 판결입니다.
- 마귀는 그동안 죽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 인류를 노예로 삼아 불행을 대물림해 왔지만, 예

롬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수님이 무덤 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 마귀의 유일한 무기였던 지옥의 법은 완전히 꺾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팩트를 우리 집안에 꼭 접지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기류는 즉시 박살 납니다.

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보편성과 은혜의 연대성

(1)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천국 통장

-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 고백하며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롬 1:14). 옛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영토 밖에 사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야만인’이라 부르며 엄청나게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혈통이나 조건이라는 벽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과거 형편이 어떠했든지 상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거룩한 장자 축복을 합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2) 우리 집안에 거룩하게 흐르는 축복의 파이프라인

-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롬 1:11).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불행의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끊어내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우리 집안에 영원히 튼튼하게 설치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내 입술의 고백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라

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축복 자석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법칙입니다 (롬 1:17).
- 옛날 로마 성도들은 세상의 무서운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영혼의 단단한 닻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이나 조상들이 남긴 힘든 형편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이 복음 진리에 내 마음의 플러그를 꽂아 넣을 때, 우리 집안의 모든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막힌 문을 뚫어버리는 거룩한 천국의 축복 자석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나. 부끄러움을 깨뜨리는 천국 파수꾼의 당당한 야성

-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화려한 로마 제국의 힘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롬 1:16).
-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당시 뚝뚝하고 힘센 로마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그것이 영적 세계를 단번에 뒤집는 하늘의 원자폭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반복되는 실패나 눈물 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술로 당당하게 선포할 때 어둠의 무리들은 일곱 길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실전 점검: 마음의 안테나를 예수님께 맞추기]

- 내 삶을 억누르는 힘든 형편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내 인생의 소유권이 완벽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둘로스>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확

신하나요? (롬 1:1)

-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힘의 가짜 평화 앞에 쫓지 않고, 복음의 초자연적인 다이너마이트<두나미스>의 능력을 진짜로 믿나요? (롬 1:16)
-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아들로 선포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집안의 질병과 아픔을 완벽하게 묶어버렸음을 인정하나요? (롬 1:4)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집안에 대대로 청구되던 모든 저주의 부채는 나의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 아래 완전히 청산되었다!" (롬 1:1)
- "우리 집을 묶고 있던 모든 가난과 질병의 견고한 진은 이 시간 복음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두나미스> 앞에 산산이 폭발될지어다!" (롬 1:16)
-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안전 경계선<호리조>을 그으셨으니, 우리 집안을 넘보던 사망과 저주의 가택침입은 원천 차단되었도다!" (롬 1:4)

[파수꾼의 기도]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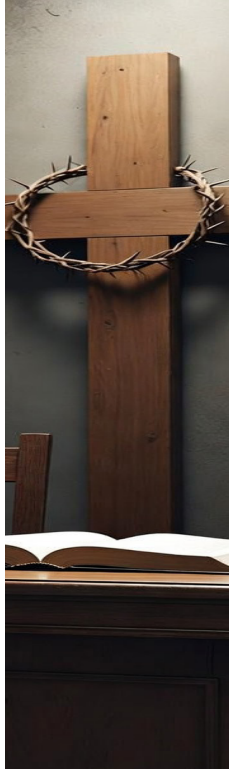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로마 제국의 거대한 황제 숭배의 심장부 한복판에서도 복음의 권세를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처럼,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대적의 문을 향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롬 1:16).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넘겨드리오니, 우리 집안의 옛날 나쁜 흐름들이 들이밀던 모든 불법 청구서는 하늘 법정에서 전면 기각될지어다 (롬 1:1).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영적 경계선을 그어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집안의 실제 기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롬 1:4). 현실의 형편에 요동치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법적 판결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오니, 나를 시작으로 우리 후대 천 대까지는 오직 거룩하고 건강한 명문 가문의 축복 유산만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 2 장

/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제2장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도입내용

마귀는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언제나 무서운 악당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아주 양전하고 교양 있는 모습, 혹은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종교적인 배경을 무기 삼아 우리 집안 안방에 슬며시 등지를 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대놓고 짓는 죄를 혼낸 다음, 이번에는 거룩한 척 남을 손가락질하던 종교인들의 콧대를 꺾어버립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경건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를 말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집안을 묶고 있던 위선과 정죄의 플러그가 완전히 뽑혀 나갑니다. (롬 2:1)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평화와 위선의 실체

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브레이크 고장과 세상 학문의 한계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 가치를 잃어버린 불량 주와 같은 마음

- 바울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

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롬 1:28).

[롬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 여기서 '상실한 마음'의 진짜 뜻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 '쓰레기통에 버려진 불량 동전' <아도 키모스>를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생의 기준이 통째로 고장 나 버려서, 원래 써야 할 바른 길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정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롬 1:26).

[롬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대단한 도덕 철학을 자랑했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조차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과 성적인 타락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암전한 도덕으로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음란과 중독의 접지선을 절대로 차단할 수 없음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2) 마귀가 꽃아둔 21가지 불행의 플러그

-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방임 <파라디

도마>이 시작되면, 그 인생의 토양 위에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등 21가지나 되는 파괴적인 죄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됩니다(롬 1:29-31).

-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간의 영혼 속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진을 치고 꽃아둔 어둠의 불행 플러그들입니다.

나.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마음속 숨은 재 판정

(1) 남을 심판하는 오만한 재판관의 의자 박살 내기

- 바울은 밖에서 죄짓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안전해"라고 착각하며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던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정면으로 깨부눕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선언하십니다(롬 2:1).
- 여기서 '판단하는' <호 크리논>이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 조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재판관인 것처럼 높은 의

[롬 1:29-31]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에 앉아 남을 무시하고 심판하는 오만한 종교적 태도를 뜻합니다.

(2) 겉모습의 껍데기를 찢어버리는 마음의 수술

-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종교적인 직분이나 경력을 대단한 훈장처럼 자랑하지만, 바울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2:28).
- 진짜 영적 체질이 바뀌는 비결은 교회에 출석하는 도장 개수가 아니라,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내면 수술에서 시작됩니다 (롬 2:29). 여기서 '마음' <카르디아>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뜻합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형식적인 종교 관습과 착한 척하는 가면의 가죽을 완전히 찢어내야만 참된 성결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롬 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가면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마귀 참소의 무효화

가. 가면을 벗기시는 재판과 공의의 법정

(1)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법안

- 바울은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가문의 배경, 교회에서의 겉모습으로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명백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2:11).
- '외모로 취하심' <프로소폴렙시아>은 옛날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보고 대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 종교라는 거룩한 가면을 보지 않으시고, 그 가면 뒤에 숨은 심령의 진짜 알맹이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2) 숨겨둔 비밀 장부가 드러나는 대청소의 날

- 복음의 빛이 우리 삶에 제대로 비칠 때, 인간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모든 부끄러운 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마귀의 모든 불법적인 고발이 무효가 되는 영적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2:16). 내 열심으로 내 허물을 대충 덮으려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내 안의 위선과 쓴 뿌리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마귀가 들이밀던 모든 정죄의 청구서는 완벽하게 무효가 됩니다.

[롬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마음 쏘개기

(1) 심판을 미루어주신 진짜 이유

-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경고하십니다 (롬 2:4). 우리 집안에 당장 무서운 벌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을 "내가 잘 살아서 그렇구나" 하고 착각하며 죄를 계속 쌓아두는 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 하나님이 심판을 꼭 쥐고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위선이 예뻐서가 아니라,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2)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마음 부수기

-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롬 2:5).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 '고집'의 진짜 뜻은 단단하게 굳어버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돌덩이' <스클레로테스>를 말합니다. 우리 집안을 흐르는 어둠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이 완고한 종교적 돌덩이를 십자가의 망치로 쪼개어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위선의 플러그를 뽑고 중심의 성결을 파수하라

가. 겉치레 경건을 넘어서 진짜 천국 접지

- 우리가 집안의 어두운 내력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환경을 탓하던 정죄의 입술을 단호히 닫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어했던 모든 상실한 마음

의 나쁜 기류를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예수님의 주권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겉모습의 종교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성령님의 신령한 법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밀착시킬 때, 가문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자기장은 소멸됩니다.

나. 변명이 통하지 않는 하늘 법전 앞에서의 정직함

-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라 선언하셨듯이 (롬 2:1), 하나님 앞에서는 집안의 불리한 형편이나 남들의 시선 뒤로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 은밀한 죄를 숨겨둔 채 무늬만 성도인 척 지내려던 영적 허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변명을 멈추고 내 심령의 부끄러운 지경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통과시킬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위선이 아닌 진짜 영적 권위와 축복의 유산이 그대로 전수됩니다.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삶에 밖으로 죄짓는 세상 사람 같은 방탕함이 나, 안으로 남을 손가락질하는 종교적인 위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요? (롬 1:28, 롬 2:1)

- 하나님은 인간이 쓴 가짜 경건의 가면<프로소폴롭 시아>에 결코 속지 않으시고 진짜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임을 인정하나요? (롬 2:11)
-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내 안부 장치로 착각하지 않고, 매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있나요? (롬 2:29)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집안의 흐름을 가로막고 속이던 모든 위선적인 종교주의와 착한 척하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롬 2:1)
-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흘러들어왔던 내면의 모든 불안과 정욕의 플러그는 즉시 뽑혔다!" (롬 1:28)
- "내 안의 표면적인 경건의 껍데기는 파쇄되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마음의 진짜 수술이 일어날지어다!" (롬 2:29)

[파수꾼의 기도]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1] 그러므로 남을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은 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내 안의 혈기와 교만, 은밀한 죄악의 플러그를 그대로 방치했던 못난 종교적 위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롬 2:1).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리 집안에 흘러들어왔던 모든 어두운 기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롬 1:28). 인간이 쓴 가면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 진짜 중심을 숨김없이 개방합니다 (롬 2:11). 육신의 행위나 종교의 껍데기를 의지하던 불신앙을 청산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내고 오직 성령님으로 행하는 참된 마음의 할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롬 2:29). 우리 가정에는 오직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기류만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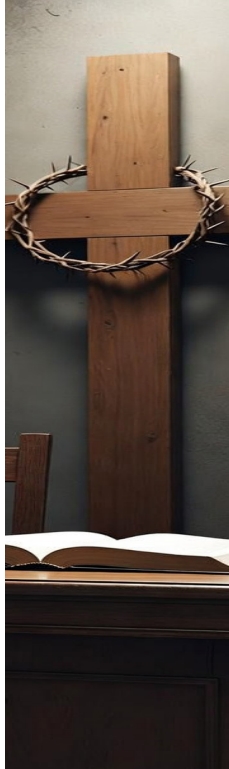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렐은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 3 장

/

예수님의 은혜

제3장 예수님의 은혜

도입내용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버둥거리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하늘 법정의 엄격한 심판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 눈에 합격점인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영적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알팍한 도덕심과 종교적인 자만심을 와작박살 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날아왔던 무서운 벌금 청구서를 단번에 찢으시고, 저주의 자리를 축복이 쏟아지는 시은좌로 바꾸신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롬 3:23-24)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빛 독촉 고발장과 하늘 법정의 뺑점 판결

가. 모든 인류를 향한 법정의 유죄 확정과 착한 행위의 한계

(1) 변명하지 못하도록 입을 꽉 틀어막는 하늘 법정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선언들을 낱낱이 꺼내어 온 인류를 하늘 법정의 피고인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3:19).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 여기서 ‘모든 입을 막고’의 진짜 뜻은 죄인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짝 틀어막아 버린다’ <프라쑈>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집안 환경이나 조상들의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우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말대꾸도 기각하시며 우리가 완벽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2) 죄를 보여주지만 하는 거울 같은 법의 한계

- 유대인들은 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 바울은 그 법이 구원 문서가 아니라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일 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3:20).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다짐으로는 집안에 흐르는 어둠의 기류를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거울이 얼굴에 묻은 더러운 때를 보여주지만 할 뿐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법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만 해 줄 뿐입니다.

나. 내 힘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법안과 대속의 비밀

(1)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 오신 핏값

-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 완전히 파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완전히 무관한 백 퍼센트 완벽한 천국의 새 마스터플랜을 전격 가동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3:21).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언하시며 복음의 알맹이를 꺼내놓으십니다 (롬 3:24). 여기서 '구속'의 진짜 뜻은 옛날 고대 노예 시장에서 거액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노예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는 '속량' <아폴뤼트로시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라는 핏값을 지불하시는 그 순간, 마귀가 우리 집안에 주장하던 모든 합법적 소유권 노예 계약서는 영원히 파기되었습니다.

(2) 저주의 자리를 축복의 보좌로 바꾸는 피의 덮개

-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구속사의 정수를 선포하십니다 (롬 3:25).
- '화목제물'의 원어는 구약 시대 성막 안의 법궤를 덮고 있던 뚜껑, 즉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시은좌' <힐라스테리온>를 뜻합니다. 일 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던 그 황금 뚜껑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안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완벽하게 누르시고, 그 자리를 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안방으로 리모델링하셨습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차별 없는 무죄 선언과 공의의 완성

가. 모든 사람이 걸린 영적 빚더미와 차별 없는 무죄

(1) 천국 통장이 바닥나 파산해 버린 인류의 비참함

- 바울은 우리 가문과 인생이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영적 결핍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롬 3:23).
-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의 진짜 뜻은 화살이 과녁에 미치지 못하고 툭 떨어지거나,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 부도가 난 '파산 상태' <후스테레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급이 뚝 끊긴 가문은 영적인 부도 상태가 되어 늘 가난, 질병, 다툼의 나쁜 기류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대가 없이 통쾌하게 때려주시는 무죄 판결의 망이

- 하나님은 영적 부도 자들을 향해 돈이나 조건을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합법적인 무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아니라"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3:26).
- '의롭다 하심'은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나님이 판결 방망이를 쿵쿵 치시며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공식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칭의' <디카이오오>입니다. 이 선언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도레안> 주신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고 오는 그 어떤 옛날 고발장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원천 기각됩니다 (롬 3:24).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 패스해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확증

(1) 옛날 죄를 붉은 보혈로 패스해 주신 은혜

-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선포하십니다 (롬 3:25).
- '간과하심'은 죄를 보고도 대충 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질 때까지 심판을 합법적으로 '패스하여 미루어 주셨다' <파레스스>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 속에서도 우리 집안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 이 복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오래오래 참아주셨던 구속사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 사랑과 법을 동시에 만족시킨 십자가의 기적

-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실 수 없었기에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법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 삼으심으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내리십니다 (롬 3:26).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자량의 플러그를 뽑고 칭의의 보혈을 인출하라

가. 내 자량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믿음의 규칙

-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3:27). 우리가 집안의 저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내 의로움이나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 내 행동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100% 의지하는 '믿음의 규칙'에 내 영혼을 접지할 때, 가문을 누르던 어둠의 기류는 즉시 사라지고 하늘의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신령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완벽한 평등

-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롬 3:29).
- 마귀는 자꾸 우리 집안의 가난했던 과거와 척박한 형편을 들추며 소외감을 심으려 하지만, 복음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롬 3:22). 내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십자가 위 황금 뚜껑 시은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내 삶에 믿음으로 꼭 인출하는 그 순간,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로 전격 이동하게 됩니다.

[롬 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힘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나요? (롬 3:20)
-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가문의 나쁜 흐름을 다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완전한 몸값 청산<아폴뤼트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시스>을 확실하게 신뢰하나요? (롬 3:24)

- 하나님이 내 집안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은혜의 황금 뚜껑 자리' <힐라 스테리온>를 믿나요? (롬 3:25)

[오늘의 큰소리 선포]

- "내 행동과 조건으로 잘나 보이려던 모든 자만심과 인간적인 자랑의 플러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산되었다!" (롬 3:27)
-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엄청난 핏값 덕분에 우리 집안을 묶고 있던 모든 사망의 노예 계약서는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롬 3:24)
- "우리 집은 더 이상 저주와 진노의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은혜의 시은좌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롬 3:25)

[파수꾼의 기도]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의로움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단 1밀리미터도 미칠 수 없었던 비참한 영적 파산자였음을 정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직하게 고백합니다 (롬 3:23). 이 시간 내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핑계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청산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롬 3:24). 조상들의 수많은 죄악을 오래 참으심으로 다 패스해 주시고 (롬 3:25), 오늘 나를 이 집안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위에 세워진 화목제물의 능력을 우리 가정에 선포합니다. 마귀가 우리 집의 연약함을 빌미로 청구하던 모든 정죄와 참소의 고발장들을 예수님의 피로 전면 기각하여 주 시웁소서 (롬 3:26). 우리 집안을 흐르던 어두운 기류는 멈추고, 오직 하늘의 완벽한 의와 차별 없는 축복의 생명수만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 쿵쿵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타내려하심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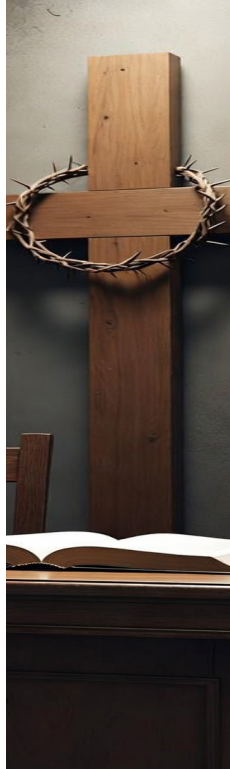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제 4 장

/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제4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도입내용

우리 집안의 딱한 형편이나 짝 막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착한 행동이나 조건,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로 도장이 짝 찍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나이가 백 세나 되어 자식을 낳을 힘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천국 등기부등본을 내 삶에 그대로 가져올 때, 우리 집안의 모든 막힌 문이 기적처럼 열리게 됩니다. (롬 4:3, 롬 4:19)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내 노력의 성적표를 깨뜨리는 천국의 은혜 장부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가. 할례 받기 전 통과된 무죄 선언과 다윗의 영적 빛탕감

[롬 4:19]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 일해서 번 일당이 아니라 공짜 선물로 기록된 믿음의 장부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 바울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자랑하던 종교적 의식과 행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브라함의 역사적 팩트를 꺼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4:3).

- '의로 여기신바'의 진짜 뜻은 가게부나 상업 장부에 '합법적으로 기록해 넣다', '컴퓨터에 숫자를 딱 입력하다'<로기조마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에게 받는 돈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월급(채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고 엉망진창인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장부에 '최고의 의로움'으로 입력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등기부등본이 발행되는 순간, 우리 집안의 신분은 마귀에게 시달리는 빚쟁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진짜 상속자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2) 죄의 빚더미를 계산에서 빼버리시는 법적 청산

- 바울은 다윗 왕의 고백을 빌려 가문의 저주가 딱 멈추는 합법적인 비밀을 증명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롬 4:7-8).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오우 메 로기조 마이>이라는 말은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집안의 죄의 빛을 장부에 계산해 넣지 않겠다! 끝!" 하고 종지부를 찍으신 영적 탕감 선언입니다. 진짜 복 받은 명문가는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가문의 과거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장부를 깨끗이 지워주신 법적 청산에서 시작됩니다.

[롬 4:7-8]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믿음과 몸의 부활

(1) 하나님과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천국 접지

-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의 한계나 의사들의 말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4:17).
-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마주 서 있는 상태' <카테네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난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고 지친 몸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마음의 안테나를 꽉 접지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권세가 그 집안에 임했습니다. 자식이 아예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집안의 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뜻을 활짝 펴는 확신

-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완벽한 신체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롬 4:19).

[롬 4:19]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선포하십니다 (롬 4:20-21). '확신하였으니'의 진짜 뜻은 '바람을 가득 품은 돛배처럼 의심의 빈틈이 전혀 없이 뱅뱅하게 채워지다' <플레로포레오>입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말라비틀어졌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마음의 배를 뱅뱅하게 채울 때, 우리 집안의 끊어진 축복의 줄은 다

[롬 4:20-21]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시 연결됩니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우리 집안을 위해 발행된 무죄의 등기부등본

가. 할레라는 도장을 찍기 전의 약속과 진짜 상속자 사건

(1) 겉모습의 표시를 하기 전 확정된 무죄 판결

-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
고 우겼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
은 시점이 그 어떤 종교 의식도 행하기 훨씬 전이
었다는 역사적 팩트를 꺼냅니다. "저가 할레의 표
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선포하십니다(롬 4:11).
- 이것은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
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의인으로 인정
해 주기 위함입니다. 내 집안 배경이 아무리 초라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합
법적으로 찍어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도장이 동
일한 효력으로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롬 4:11] 저가 할레의 표
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
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
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
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세상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법칙

-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명시하십니다(롬 4:13).
-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디아 디카이오쉬네스 피스 테오스> 유산 상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라는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내 행동으로 천국 유산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약속을 깨뜨리는 자들이지만 (롬 4:14), 오직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집안은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합법적인 천국의 상속자 권세를 얻게 됩니다(롬 4:16).

나. 예수님의 넘겨지심과 부활이 주는 법정적 승리의 도장

(1) 우리의 파산을 처분하기 위해 대신 감옥에 가신 예수님

-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부에 의로운 점수로 기록된 옛날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 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롬 4: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4:24).

-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십자가의 완전한 배상 사건을 선포하십니다 (롬 4:25). ‘내어줌이 되고’의 진짜 뜻은 재판 법정에서 ‘죄인을 감옥에 넘겨주거나 빚 탕감을 위해 죄인의 몸을 법적으로 넘기다’<파라디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물어내시려고 하늘 법정의 처형들에 자기 몸을 전격 넘겨주신 것입니다.

(2) 우리를 의인으로 최종 선언하시려고 깨뜨린 무덤 문

- 또한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최종 선포하시려고 주님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위대한 결론을 꺼내놓으십니다 (롬 4:25).
- ‘살아나셨느니라’<에게이로>는 그냥 숨만 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흘린 피를 보시고 “완벽한 영수증으로 승인한다!” 하며 최종 무죄 판결 방망이를 쿵쿵 치셨다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꼭 쥐는 순간, 우리 집안의 패배주의 기류는 영원히 쫓겨납니다.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죽은 것 같은 현실을 뚫고 축복의 도장을 찍으라

가. 현실의 딱한 형편을 거스르는 믿음의 야성

-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십니다 (롬 4:18). 영적 파수꾼은 내 눈앞에 보이는 엉망인 집안 형편과 자녀들의 답답한 상태라는 현실에 쫓지 않는 당당한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뽕뽕하게 채우고 "우리 집안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대!"라고 선포할 때, 부활의 에너지가 역사하여 말라비틀어진 우리 집안의 토양이 에덴동산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조상들의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천국의 장부 기입

- 우리는 일한 대로 대가를 바라는 종교적인 노예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롬 4:4).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내 영혼을 단단히 접지하십시오 (롬 4:24).
- "주께서 그 죄를 다시는 계산하지 않으실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하신 그 법적 효력이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집 안방과 거실,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대로 광 찍혀 기록<로기조마아>됩니다. 마귀가 물려준 불행의 대물림은 뚝 멈추고, 오직 아브라함의 복과 의인의 유산만 천 대까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행동이나 겉모습이 아닌, 엉망인 자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부만을 백 퍼센트 신뢰하나요? (롬 4:5)
- 내 가문과 자녀들의 형편이 아브라함 백 세 때처럼 '죽은 것 같이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나요? (롬 4:19)
- 주님이 내 집안의 모든 나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장부를 보혈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셨음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5]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19]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을 확신하나요? (롬 4:7)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집안의 모든 나쁜 흐름은 다 지워졌고, 조상들의 죄악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가리워졌다!" (롬 4:7)
- "내 현실이 죽은 것 같고 형편이 파산했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선포한다!" (롬 4:17)

"예수님이 나를 의인 삼으시려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집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이 넘쳐날 지어다!" (롬 4:25)

[파수꾼의 기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낙심하던 불신앙의 플러그를 이 시간 완전히 뽑아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음으로 꼭 붙잡습니다 (롬 4:3).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죽은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우리 집 안방에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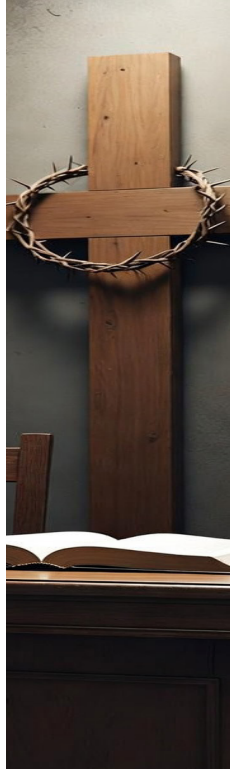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인출합니다(롬 4:17). 우리 죄 때문에 감옥에 대신 넘겨지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오늘 우리 집안의 깨지지 않는 천국 등기부등본이 되게 하옵소서(롬 4:25). 우리 집의 죄를 장부에 다시는 적지 않으시는 은혜를 찬양하오니, 절망의 기류는 영원히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자녀와 후손 천 대까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 5 장

/

아담의 저주 파기

제5장 아담의 저주 파기

도입내용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흘러오는 지독한 고통이나 불행의 악순환은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싸인해 버린 '사망의 노예 계약서' 때문에 물려받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첫 아담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완전하게 덮고도 남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핏줄을 타고 물려받았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은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대한 은혜의 홍수 앞에 완전히 찢겨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첫 조상을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진짜 주인 교체'를 통해, 내 삶에 생명과 축복의 대장 노릇이 시작됩니다. (롬 5:17)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두 조상의 대표성 격돌과 사망의 독재 정치 부수기

가. 한 사람 아담이 만들어낸 죄의 파이프라인과 사망의 독재

(1) 우리 집안 안방까지 나쁜 기류를 흘려보낸 통로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 바울은 집안의 저주와 인류의 원죄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물림되었는지 그 영적 통로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롬 5:12).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여기서 '말미암아'의 진짜 뜻은 '어떤 파이프나 뚫린 관을 타고 끝까지 흘러가다' <디아>입니다.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의 파이프를 열어버렸을 때, 그 유전적인 관을 타고 온갖 가난, 질병, 저주라는 구정물이 온 인류와 후손들의 가계 속에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습니다.

(2) 인생을 노예 삼아 무자비하게 군림하던 어둠의 대장

-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로 사망은 우리 집안 위에서 무서운 독재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5:14).

[롬 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 '왕노릇 하였나니'의 진짜 뜻은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통치하다<바실류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집안의 고질적인 가난, 요절, 중독의 기류는 사망이라는 악당이 우리 집안에서 대장 노릇을 해왔던 합법적인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첫 조상 아담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망의 독재 밑에서 신음하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나. 둘째 조상 예수님의 넘치는 공짜 선물과 생명의 대반전

(1) 아담이 망쳐놓은 파괴력을 백 배나 압도하는 은혜의 보따리

- 하지만 하나님은 첫 아담이 망쳐놓은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둘째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5:15).

- ‘은혜’<카리스>와 ‘선물’<도레아>은 우리 집안의 척

[롬 5: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박한 조건이나 죄악의 깊이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천국 보좌의 공급입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뺏점자리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가문의 모든 실수를 다 덮고 우리를 당당한 무죄 판결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롬 5:16).

[롬 5: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 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2) 예수님 덕분에 생명 안에서 누리는 진짜 대장 노릇

- 바울은 우리 집안의 흐름을 노예에서 왕으로 180도 바꾸는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위대한 역전 선포를 하십니다 (롬 5:17).
- 사망이 대장 노릇 하던 옛날 통치 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천국의 선물을 가득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사망과 마귀를 발밑에 밟아버리고 '생명 안에서 진짜 대장 노릇' <바실류오 엔 조에>을 하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원수 관계를 청산한 맞교환

과 죄를 집어삼키는 은혜의 홍수

가. 우리가 아직 죄인 삼천포를 헤매고 있을 때 확정 된 사랑

(1) 자격이 뺄점일 때 먼저 찾아와 도장 찍어주신 사랑

-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나 착한 행동을 단 1원어치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신 위대한 사건을 꺼내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5:8).
-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위해, 주님은 우리가 착해지기도 전에 먼저 피를 흘려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힘입어 무죄 선언을 받았으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롬 5:9).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2) 원수 된 빛을 통째로 맛바꾸어 주신 천국의 거래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5:10).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 '화목되었은즉'의 진짜 뜻은 고대 시장에서 '똑같은 가치의 물건을 서로 맞바꾸다', '빛을 완벽하게 갹아주고 원수 관계를 끝내다' <카탈랏소>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목숨값과 우리 가문의 원수 된 빛더미를 통째로 맞바꾸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시원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롬 5:11).

[롬 5: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 내 실수의 깊이보다 훨씬 더 넓게 쏟아지는 천국의 홍수

(1) 내 속의 쓴 뿌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

-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선포하십니다 (롬 5:20).
- '범죄를 더하게'의 진짜 뜻은 죄의 본질과 숨겨진 가문의 더러운 쓴 뿌리들이 말씀의 돋보기 앞에'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날날이 불어나고 가득 차는 상태<플레오나조>를 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집안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2) 죄의 파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은혜의 폭포수

- 하지만 성경은 내 죄가 불어난 것보다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넘쳤다'라는 우주의 절대 법칙을 선언합니다. '더욱 넘쳤나니'의 진짜 뜻은 '어떤 측정기를 들이대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죄의 언덕을 완전히 잠기게 만드는 거대한 홍수'<히페르페리스세우오>를 의미합니다. 우리 집안의 과거 잘못과 우상 숭배의 내력이 아무리 깊고 질겼을지라도, 십자가 은혜의 홍수가 밀려오면 그 죄의 역사를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리고, 생명이 가문을 다스리는 진짜 축복의 명문가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롬 5:21).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아담의 노예 계약서를 찢고 대장의 주권을 발동하라

가. 우리 집안의 영적 핏줄을 바꾸는 주권 이전

-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천국의 연대 법칙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롬 5:19). 우리는 더 이상 첫 조상 아담의 핏줄에 갇혀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라고 한탄하는 숙명론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우리 집안의 첫 조상을 아담에서 둘째 조상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사시키십시오. 내 속의 영적 DNA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나를 괴롭히던 가난과 질병의 노예 체제는 즉시 깨집니다.

나. 생명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입술의 권세

- 은혜와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신 대장의 주권을 내 입술로 당당하게 발동하십시오 (롬 5:17). 영적 파수꾼은 집안 형편에 기죽어 눈물 흘리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진영을 꾸짖고 명령하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 죄와 가난이 대장 노릇 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는 예수님의 피 앞에 영원히 끝났음을 마귀를 향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해 선포하십시오 (롬 5:21).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집 거실과 안방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가문의 뿌리가 여전히 첫 조상 아담의 저주와 실패의 기류에 묶여 있다고 착각하며 기죽어 있지 않나요? (롬 5:12)
- 내가 아직 죄인 삼천포를 헤매며 원수 같았을 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탕감해 주신 화목의 교환<카탈락소>을 진정으로 믿나요? (롬 5:10)
- 우리 집안의 과거 잘못과 상처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압도적<히페르페리스 세우오>으로 쏟아지고 있음을 확신하나요? (롬 5:20)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첫 조상 아담을 통해 우리 가문에 흘러들어왔던 모든 사망과 저주의 계약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기되었다!" (롬 5:12)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 "가난과 질병이 내 인생에 대장 노릇 하던 모든 어둠의 기류는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지어다!" (롬 5:17)
- "우리 집안의 죄가 깊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압도적인 홍수처럼 쏟아져 명문 가문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도다!" (롬 5:20)

[파수꾼의 기도]

가문의 시조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첫 조상 아담의 핏줄을 타고 우리 집안에 흐르던 모든 실패와 저주, 질병의 노예 계약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롬 5:12, 롬 5:19). 우리가 아직 자격 없고 죄인 삼천포를 헤매며 하나님과 원수 같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롬 5:8), 내 가문의 소유권을 오직 예수님께로 영원히 이사시킵니다. 과거의 죄악과 쓴 뿌리가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압도적인 폭포수로 쏟아졌음을 선포합니다 (롬 5:20). 이제 우리 가정에는 질병과 가난의 어둠이 감히 대장 노릇을 하지 못하며, 오직 은혜와 생명이 왕 노릇 하는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의 대전환이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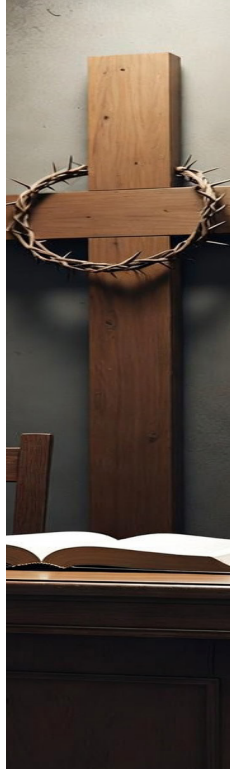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
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
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
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 6 장

/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제6장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도입내용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중독, 특히라면 터지는 분노, 지독한 질병의 사슬을 끊으려고 수없이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왜 자꾸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마귀가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내 옛날 모습을 빌미로 우리 집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빛도 받아낼 수 없고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옛날 모습이 무덤 속에 쏙 들어가는 ‘영적 장례식’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던 플러그를 이제 뽑아버리십시오. 나를 못살게 굴던 옛날 남편(죄의 법)과 완벽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선포할 때, 마귀의 모든 불법 청구서는 멈추고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롬 6:4, 롬 7:4)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무덤 속에 끝난 장례식과 백지장이 된 죄의 청구서

가. 내 결심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무덤 세례와 완벽한 연합

(1) 예수님과 한 무덤에 들어간 공동 장례식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마귀가 우리 집안에 끈질기게 불행의 청구서를 내미는 이유는, 여전히 내 옛날 버릇이 살아 움직여서 죄의 자석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꼼수를 박살내는 위대한 무덤 세례 사건을 꺼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6:3-4).

- '장사되었나니'의 진짜 뜻은 '빠도 박도 못하게 무덤 속에 같이 묻혀 매장되다' <순타프토마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의 끈질긴 혈기, 음란, 가난,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의 옛사람도 한 묶음으로 묶여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흙 속에 깊이 묻힌 시체는 더 이상 죄의 명령에 대답할 수도 없고,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2) 죄의 몸을 완전히 백지장으로 만든 십자가의 파괴력

- 우리 집안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비결은 매일 죄를 안 지으려고 이 악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6:3-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내 옛사람의 죽음을 내 권리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명백히 선포합니다(롬 6:6-7).

[롬 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 '멸하여'의 진짜 뜻은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라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만들다', '법적으로 무효화해서 백지장으로 만들다' <카타르게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던 모든 죄의 기지와 무기는 합법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 잔인했던 옛 남편과의 합법적 이혼과 축복의 재혼

(1) 옛날 남편의 독재 정치에서 탈출하는 법

- 바울은 옛날 로마 시대의 결혼법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집안의 저주 사슬에서 합법적으로 해방되었는지 영적인 맥을 짚어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롬 7:2).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 우리 집안을 쥐고 흔들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던 '죄와 율법'이라는 잔인한 옛날 남편은,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옛 남편이 틀어막던 모든 노예 계약은 자동으로 청산되고 합법적인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2) 부활하신 멋진 새 신랑 예수님과 거룩한 재혼

- 징글징글했던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영광스러운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거룩한 재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위대한 구속사의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롬 7:4).
- '열매를 맺게' <카르포포레오>의 진짜 뜻은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DNA가 우리 심령의 안방에 연결되어, 더 이상 저주와 실패의 쓴 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와 후손들을 순풍순풍 낳는 축복의 명문가 토양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으로 리모델링되었음을 뜻합니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죄에게는 완벽한 시체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대장

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천국 계산법과 주권 넘기기

(1) 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체로 기록하는 선포

-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세계 속에서 꺼내 써야 할 천국의 영수증 계산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롬 6:11).
- '여길지어다'의 원어는 앞서 아브라함의 장부에 쓰인 '기장하다'<로기조마이>와 똑같습니다. 집안의 고질적인 가난과 질병의 기류가 다시 내 안방을 넘보며 나를 속이려 들 때, 영적 파수꾼은 하늘 법정의 판결문을 딱 들이대며 "내 옛날 모습은 이미 장례식이 끝난 시체<네크로스>다!"라고 천국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참소에 대해 나를 완벽한 시체로 여길 때, 어둠의 주권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2)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드리는 결단

- 못된 옛 남편과 헤어졌으니 이제 내 온몸의 사용권을 마귀에게 불법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롬 6:13).
- ‘병기’의 진짜 뜻은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던 ‘철통 같은 무기’<호플론>를 말합니다. 내 입술과 물질, 내 온몸을 불행의 도구로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다시 살아난 자<조엔>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로 보좌 앞에 전격 접지해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신 천국의 보증 수표가 실제 삶의 현실이 됩니다 (롬 6:14).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나. 내 힘으로 하려다 터지는 탄식과 자비의 해방령

(1)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절망의 직면

-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내 마음속 죄의 본성과 성령님의 법이 부딪치며 겪는 처절한 탄식 사건을 고발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롬 7:23-24).

[롬 7:23-24]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곤고한'의 진짜 뜻은 '전쟁터에서 사지가 다 찢겨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 <탈라이포로스>를 말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라는 육신의 플러그를 꽂고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할 때, 인간은 결국 집안의 오랜 습성과 죄의 늪 아래 굴복하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2) 예수님 때문에 터져 나오는 승리의 감사

- 하지만 바울은 이 절망의 탄식을 즉시 승리의 찬양 사건으로 반전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언하십니다 (롬 7:25).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옛 남편의 목을 부러뜨려 나를 건져내셨다는 이 합법적인 해방 복음을 깨달을 때, 내면의 모든 죄책감과 마귀의 참소 기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의 신성한 자 비<엘레오스>가 임합니다.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내 손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의의 무기로 전진하라

가. 내 고집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무덤의 안식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천국의 등가교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롬 6:23). 우리는 집안의 어두운 내력과 내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혈기를 부리고 다짐하는 인본주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 내 옛날 모습은 이미 2천 년 전 예수님과 함께 세례의 무덤 속에 장사되었음을 영적으로 확정하십시오 (롬 6:4). 내가 무덤 속의 완벽한 시체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나를 맡길 때, 마귀가 우리 집에 꽂아두었던 모든 불법 접지선은 타버리고 성령님의 거룩한 안식이 안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옛 남편이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혼 선포

- 영적 파수꾼인 성도들은 집안을 찾아와 과거의 정죄감과 가난, 질병의 영수증을 내미는 옛 남편 마귀를 향해 단호하게 이혼 증서를 내밀어야 합니다 (롬 7:2). "나를 묶던 죄의 법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새 신랑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라고 대적의 문을 향해 레마의 말씀으로 호령하십시오 (롬 7:4).
- 내 입술과 몸을 오직 만왕의 왕의 의의 병기로 보좌 앞에 내어드릴 때 (롬 6:13), 우리 집안의 흐름은 저주의 삼사 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천 대까지 마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될 줄 믿습니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집안의 오랜 나쁜 습성과 중독, 질병의 사슬이 여전히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속으며 두려워하고 있나요? (롬 6:6)
-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실 때 내 모든 저주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

의 옛사람도 함께 완벽하게 장사되어<순타프토마
이> 장례식이 완전히 끝났음을 확신하나요? (롬
6:4)

- 나를 괴롭히던 옛 남편 죄의 법은 이미 죽었으며,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을 신분임을 믿나요? (롬 7:4)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집안에 대물림되던 모든 어둠의 옛사람은 예
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완벽하게 끝났다!"
(롬 6:4)
- "나를 묶고 참소하던 옛 남편 마귀와의 모든 노예
계약은 이 시간 합법적으로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선포한다!" (롬 7:2)
- "나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자니, 내 온몸과 우
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대!"
(롬 6:13)

[파수꾼의 기도]

집안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능력의 주님, 내 힘

려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
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
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
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
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
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
제들아 너희도 그리스
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
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이라

[롬 7:2] 남편 있는 여인
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
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
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
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
나느니라

[롬 6:13] 또한 너희 지
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
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

과 결단으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보려 했던 모든 못한 노력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끝난 완벽한 영적 장례식 사건을 바라봅니다 (롬 6:4). 내 가문을 흐르던 가난, 질병, 음란, 분노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매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롬 6:6). 나를 움아매고 괴롭히던 옛 남편 죄의 법은 죽었사오니, 오직 나의 참된 신랑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온전한 플러그를 접지합니다 (롬 7:4). 마귀가 더 이상 내 삶과 자녀들의 미래에 손댈 수 없도록 내 지체를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오니, 나와 내 후대 천 대까지는 오직 생명과 은혜의 왕 노릇만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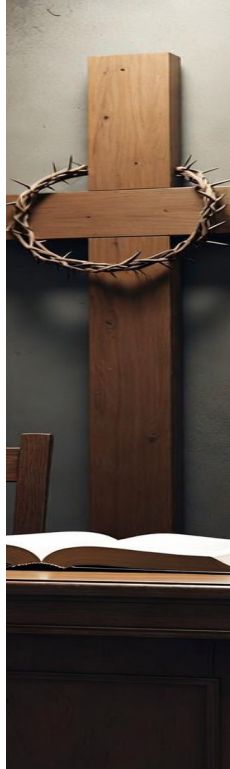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 7 장

/

생명의 성령의 법

제7장 생명의 성령의 법

도입내용

로마서 8장은, 7장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망가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 하고 슬퍼하며 부르짖던 절망의 목소리를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리는 하늘 재판소의 최종 무죄 선언으로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지대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결코 죄인이라 벌할 수 없다는 완벽한 자유의 문서가 떨어졌습니다. 나를 끔찍히 묶고 괴롭히던 마귀의 나쁜 규칙들을 단번에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새 규칙이 우리 집안의 흐름을 통째로 뒤집어엎으십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승리의 능력에 내 인생의 안테나를 딱 맞출 때, 우리 집안은 축복에서 축복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됩니다. (롬 8:1-2)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사형 판결문의 완전한 취소와 천국 규칙의 대반전

가. 절대로 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내 약점 부수기

(1) 마귀의 모든 고발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선언

-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깊은 본문을 열며 영적 세계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는 판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8:1).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정죄함'의 진짜 뜻은, 단순히 누가 뒤에서 흉을 보거나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최고 재판소에서 죄가 있다고 결론이 나서 '이제 곧 무서운 형벌을 내리라고 최종 확정된 사형 판결문'〈카타크리마〉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소유가 된 파수꾼들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과거의 부끄러운 비밀을 들고 와서 고발할지라도 하나님 이 그 사형 판결문 자체를 찢어버리시고 전면 취소하셨음을 법적으로 딱 못 박아 준 것입니다.

(2) 내 힘으로 안 되는 체질을 예수님 몸으로 끝내신 사건

-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말씀하십니다 (롬 8:3).
- '죄를 정하사'의 진짜 뜻은 죄에게 죄값을 물어 '죄 자체를 판결하고 처형해 버리다'〈카테크리넨〉입니다.

[롬 8:3]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체질과 가난, 특히 화내는 성격을 절대로 고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예 예수님의 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형 선고를 대신 쏟아부어 끝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100%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롬 8:4).

[롬 8: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 죄와 사망의 중력을 깨뜨린 생명의 성령님의 법

(1) 마귀의 나쁜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성령님의 새 법

- 바울은 우리 집안의 영적 기류를 다스리는 새 법칙을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위대한 역전의 맥을 보여주십니다 (롬 8:2).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여기서 '법'<노모스>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규칙이 아니라, '절대로 거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지배 원리'를 뜻합니다.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묵직한 '중력의 법칙'을, 거대한 비행기가 '뜨는 힘의 법칙'으로 가볍게 이겨내고 하늘로

숫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안 위에서 대대로 가난, 질병, 실패를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던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중력)'을,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보좌의 강력한 힘이 단번에 깨부수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2) 안테나 주파수의 고정과 마귀의 방해 차단

-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는 진짜 비결은, 내 생각이 지금 어느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선포하십니다 (롬 8:6-7).
- '생각'의 진짜 뜻은 그냥 문득 스쳐 지나가는 잡념이 아니라, '영혼의 안테나가 아예 한 방향으로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 정신 체계'<프로네마>를 뜻합니다. 집안에 문제만 터지면 맨날 "에휴, 그럼 그렇지, 우리 집이 어디 가겠어?" 하는 낙심과 염려라는 마귀의 주파수에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의 나쁜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내 마음의 플러그를 오직 성령님의 행복 주파수에 밀착시키는 영의 생각만이, 우리 집 가득 생명과 평안의 천국 축복을 가동하게 만듭니다.

[롬 8:6-7]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권세와 끊을 수 없는 진짜 사랑

가. 끌어버리는 노예 귀신을 쫓아내는 "아바, 아버지"의 외침

(1) 무서워 떨게 만드는 종의 영을 내쫓으시는 양자의 영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8:15).
- 마귀는 자꾸 우리 집안의 옛날 약점이나 과거 상처를 빌미로 "너희 집은 또 망할 걸?", "네 자식도 똑같이 실패할 걸?" 하고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를 기죽은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왕의 귀한 자녀가 되는 대단한 '양자의 영' <프뉴마 휘오데시아스>을 부어주셨습니다.

(2) 빗쟁이 신세를 청산하고 상속 서류를 받아 쥐는 비밀

- 우리가 부르는 '아바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의 부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르짖음은 엄청난 고대 로마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잣집의 '양자'로 입양되는 딱 그 순간, 그 사람이 과거에 지고 있던 모든 신분과 어마어마한 부채(빚)는 법적으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새 아버지를 통해서만 어마어마한 재산 상속권과 왕족의 신분증이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 영적 파수꾼인 성도님이 하늘 보좌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목놓아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맞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 자녀다!"라고 천국 법정에서 보증을 서 주십니다 (롬 8:16). 그리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내 손에 쥐여 주시는 것입니다 (롬 8:17).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나. 모든 파편을 모아 보석으로 비벼주시는 역사와 튼튼한 성벽

- (1) 가문의 모든 눈물 자국을 축복으로 요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대한 구속사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롬 8:28).

- ‘협력하여’의 진짜 뜻은 영적 세계의 모든 환경, 심지어 과거 조상들이 남긴 상처나 내가 살면서 저지른 실패의 쓰라린 파편들까지 하나님이 보좌의 손으로 직접 쥐고 맛있게 버무려 비벼내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명품 요리로 만들어내는 역사<쉴에르게오>를 뜻합니다. 성령님 안에 서는 우리 집안의 모든 아픔이 명문가를 세우는 가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재료로 리모델링됩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그 어떤 악당도 가로막을 수 없는 천국 성벽

- 바울은 로마서의 이 핵심적인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마귀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의 대못을 광광 박아버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8:33-34).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롬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대한 선언을 완성하십니다(롬 8:38-39). 우리 집안을 꼭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아가페>은, 마귀의 군대가 탱크를 끌고 와도 절대 부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튼튼한 철벽 성벽입니다.

[롬 8:38-39]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가난의 중력을 이겨내고 왕의 권세를 집행하라

가. 가난과 실패의 중력 플러그를 뽑는 성령님 접지

-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하신 천국 재판의 판결은 이미 끝났고 즉시 효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롬 8:2). 영적 파수꾼은 과거 우리 집안을 지배했던 가난, 중독, 특하면 싸우는 불화의 그림자가 또 집안을 슬쩍 넘보려고 할 때마다, 낙심해 버리는 못난 육신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롬 8:6).
- 어둠의 중력에 반응하던 불신앙의 플러그를 이 시간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백 퍼센트 밀착 시키십시오. 내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머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물기 시작할 때, 가문을 누르던 모든 사망의 탁한
기류는 싹 가시고, 우리 집에 생명과 샘물 같은 평
안의 오아시스가 넘쳐나게 됩니다.

나. 마귀의 모든 잔소리를 무효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

“누가 감히 하나님이 고르신 자녀들을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무죄라고 선언하셨다!” 하신 왕의
선언을 붙잡고 우리 집 안방을 튼튼히 지키십시
오 (롬 8:33). 마귀가 과거의 부끄러운 형편을 들
추며 마음을 흔들 때마다, 왕의 신분증을 가진 자
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아빠! 아버지!”
라고 큰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롬 8:15).

[롬 8:33] 누가 능히 하
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15] 너희는 다시 무
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
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
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서 그 무
엇도 감히 우리 집안을 떼어놓을 수 없음을 대적
의 문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할 때, 내 귀한 자녀들
과 후대 천 대까지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광스
러운 명문 가문의 축복이 실제 삶의 역사로 멋지
게 이루어집니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쑥 찾아오는 마귀의 정죄감<
카타크리마>이나 과거의 죄책감 쫓가리 앞에 여

전히 속아서 무서워하고 있지 않나요? (롬 8:1)

- 우리 집안을 자꾸만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던 죄와 가난의 중력을 깨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매일매일 꺼내 쓰고 있나요? (롬 8:2)
- 우리 집의 모든 아픈 상처와 과거 실패의 파편들까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쥐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버무려주실 것을 진짜로 믿나요? (롬 8:28)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늘 법정이 선언한 '결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완벽한 자유가 임했다!" (롬 8:1)
- "우리 집안을 누르던 가난과 질병의 나쁜 법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 (롬 8:2)
- "마귀가 들고 오는 모든 고발장과 정죄는 예수님의 피 앞에 전면 무효가 되었으며,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롬 8:33, 롬 8:39)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파수꾼의 기도]

로마서의 지성소에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오랜 연약함과 조상들의 죄악 내력을 빌미로 내 심령을 꽂꽂 묶어 노예 삼으려던 원수 마귀의 모든 사형 판결문<카타크리마>을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전면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롬 8:1). 우리 집안을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던 가난과 질병, 실패의 무거운 중력 법칙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깨부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내 영혼의 플러그를 꽂 밀착합니다 (롬 8:2). 무서워 떨게 만드는 종의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고 든든한 왕의 자녀 신분증을 부여주셨사오니 (롬 8:15), 하늘 법정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진짜 자녀의 권세로 우리 가문의 영토를 당당히 탈환합니다. 과거 가문의 모든 눈물 자국과 실패의 파편들까지 성령께서 직접 맛있게 버무려 최고의 축복 작품으로 바꾸어 주실 줄 선포하오니 (롬 8:28), 우리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벽 안에서 오직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의 축복만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 끊을 수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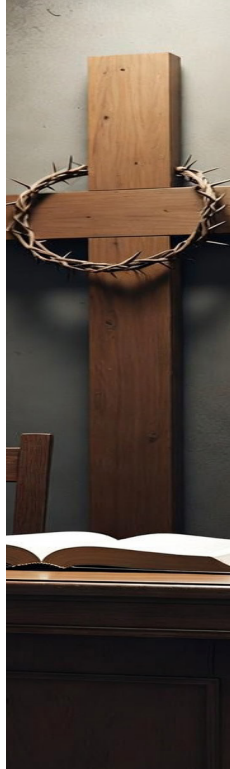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8 장

/

토기장과와 진흙같은 나

제8장 토기장이와 진흙같은 나

도입내용

우리 집안의 척박한 현실과 꼬여버린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며 원망 섞인 한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 온 우주와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토기장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집안의 진정한 변화는 내 뜻대로 하려는 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신뢰하며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거룩한 믿음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롬 9:20-21)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토기장이의 권세와 돌감람 나무 접붙임의 비밀

가. 토기장이의 권리와 대드는 마음의 파쇄

(1) 재판 결과에 반박하며 대드는 인간의 교만

-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 원망하는 인간의 영적 무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

[롬 9:20-21]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9:20).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뇨

- ‘힐문하느뇨’의 진짜 뜻은 사법적인 자리에서 ‘재판관의 판결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들다’<안티포 크리노마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불리한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2) 진흙 한 덩이의 생사여탈권을 준 토기장이

- 바울은 고대 토기장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팩트를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9:21).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 ‘토기장이’의 진짜 뜻은 진흙의 운명을 온전히 손에 쥐고 주무르는 ‘절대 주권자’<케라메우스>를 뜻합니다. 진흙은 모양과 용도에 대해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플러그를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완벽히 넘겨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은 가문의 상처를 담는 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리모델링됩니다.

니다.

나. 돌감람나무의 접붙임과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1) 척박한 나무에 쏟아지는 거룩한 진액

- 바울은 그 당시 농사 문화에서 흔히 보던 올리브나무 접붙임 방법을 빌려 이방인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1:17).
- 여기서 ‘돌감람나무’ <아그리에라이오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거친 열매만 맺는 척박한 혈통을 뜻합니다. 그런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줄기에 ‘접붙임’ <엔겐트리조>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액을 공급 받게 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2) 복음의 배에 선원을 가득 채우시는 비밀

-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구속사의 거대한 타임라인을 보여주십니다 (롬 11:25).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 '충만한 수'의 진짜 뜻은 '배에 선원과 짐이 빈틈없이 가득 차서 마침내 출항할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태'<플레로마>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 가문을 복음의 배에 태워 그 수를 채우시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집안의 복을 넘어 열방을 주께로 돌리는 파수꾼의 비전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그루터기처럼 살아남은 자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

가.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루터기의 능력

(1)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비밀

-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 장자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

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11:4-5).

- ‘남은 자’의 진짜 뜻은 ‘거대한 산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깊은 땅속에 뿌리를 박아 살아남은 그루터기’ <휘포레이마>를 뜻합니다. 마귀가 가문을 대대로 짓밟고 우상 숭배의 어둠으로 쓸어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 ‘나’를 이 가문의 남은 자, 즉 영적 파수꾼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롬 11:4-5]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 행동이 아닌 백 퍼센트 공짜 은혜의 보장

-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명시하십니다 (롬 11:6). 남은 자의 자격은 내 종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에서 나오는 법적 보장입니다. 이 남은 자의 영적 아성을 깨울 때, 우리 집안의 흐름은 저주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주님께로 돌아가는 질서

(1)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부요함

- 바울은 로마서의 거대한 교리 파트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노래를 터뜨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부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11:33).
- ‘지혜’의 원어 <소피아>와 ‘지식’의 원어 <그노시스>는 인간의 얇은 생각으로 감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집안의 아픔과 눈물의 광야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안에서는 명문 가문을 짜 맞춰 가시는 정교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부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2) 모든 주권의 종착지 되신 오직 여호와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사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롬 11:36).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최종 결론이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 아래 묶여 있음을 선포할 때, 마귀가 던지던 모든 불안과 염려의 기류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말대꾸를 멈추고 약속의 진액을 흡수하라

가. 인간적인 핑계를 멈추는 주권 수용

-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하신 주권 앞에 내 고집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롬 9:21).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인가?"라며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던 모든 원망의 안테나를 단호히 부서버리십시오 (롬 9:20).
- 주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토기장이이심을 100%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의 찌그러진 조각들은 보좌의 손길에 의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의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었느냐 말하겠느냐

나.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인출하는 믿음의 야성

-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확정하십시오 (롬 11:17). 가문 대대로 내려온 척박한 내력에 시련을 두지 말고, 접붙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액을 입술의 말씀으로 매일 공급받아야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합니다.

- 나는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남은 자' <휘포레이마>임을 대적의 문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롬 11:5). 내 안의 영적 야성이 가동될 때, 우리 가정의 안방을 누르던 완악함의 기류는 깨어지고,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 오는 오직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영광만 흐르게 됩니다.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삶의 척박한 현실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드는 입술을 열고 있지 않나요? (롬 9:20)
- 나는 가문이 물려준 돌감람나무의 체질에 갇혀 있습니까,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의 진액에 완벽히 접붙여졌음을 확신하나요? (롬 11:17)
- 내가 우리 집안의 오랜 어둠 속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살아남은 거룩한 '남은 자'임을 100% 확신하나요? (롬 11:5)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의 큰소리 선포]

- "내 인생의 완벽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모든 인간적 고집은 완전히 파쇄되었다!" (롬 9:21)
- "나는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내 안에는 오직 보좌의 거룩한 진액만 흐른다!" (롬 11:17)
- "나는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차단하고 거룩한 기류를 전수할 은혜의 '남은 자' <휘포레이마>임을 선포한다!" (롬 11:5)

[파수꾼의 기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원망하며 내 얇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힐문하고 판단했던 모든 교만과 무지의 죄악을 정직하게 자복합니다 (롬 9:20). 내 뜻과 혈기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의 절대 주권 아래 내 온 인생을 양도합니다 (롬 9:21). 아무런 가치 없던 돌감람나무 같은 나를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의 몸에 접붙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진액을 수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롬 11:17). 사단이 우리 집안을 멸하려 청구했던 모든 사망의 사슬

[롬 9:21] 토기장이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9:21] 토기장이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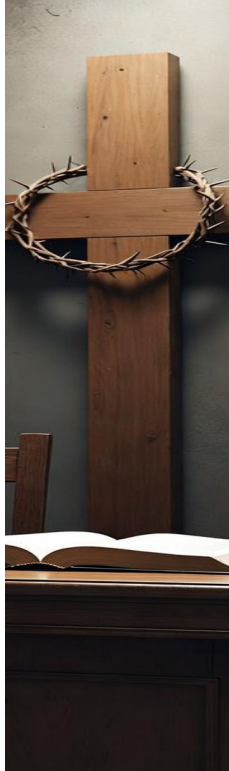
속에서도 나를 은혜로 택하사 가문의 파수꾼이자 '남은 자'로 구별해 주셨사오니 (롬 11:5), 내 안에 숨겨진 영적 야성을 발동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선포하오니 (롬 11:36), 우리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영광의 유산만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
께받는 자되었은즉

[롬 11:5] 그런즉 이와 같
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
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
느니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
아감이라 영광이 그에
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제 9 장

/

삶의 영적 리모델링

제9장 삶의 영적 리모델링

도입내용

로마서의 깊고 놀라운 비밀을 다 배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들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진짜 믿음의 실천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파수꾼들의 신앙은 골방 속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더러운 우상 숭배 제사 문화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외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기류를 거스르고 내 몸의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할 때, 비로소 집안을 묶고 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잘려 나가고 실제 삶의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롬 12:1-2)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로마의 우상 제사를 부수는 거룩한 예배와 빛의 무기

가.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와 세상 거꾸집의 차단

(1)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통째로 바치는 규칙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 바울은 로마서의 행동 실천편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12:1).

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산 제사’의 진짜 뜻은 옛날 성전처럼 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난 내 몸을,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끗한 소유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티시아 조사>를 뜻합니다. ‘영적 예배’의 원어 <로기켄 라트레아>는 감정적으로만 흥분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하고 합법적인 삶의 봉헌’을 의미합니다. 내 몸의 사용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던지는 것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2) 세상이 만든 주조 틀을 거부하는 마음의 변화

- 바울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죄악 문화 속에 살던 성도들에게 세상 흐름을 끊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롬 12:2).

- ‘본받지 말고’의 진짜 뜻은 ‘주변의 모양이나 나쁜 틀에 맞춰 똑같이 찍어내다’<시스케마티조>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음란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거꾸집(스키마)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삶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 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이 세상 거꾸집에 내 삶의 플러그를 꽂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마음의 안테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메타모르포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 세상 권세를 대하는 파수꾼의 태도와 빛의 갑옷

(1)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위임된 힘의 인정

-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제국의 핍박 때문에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국가와 지도자들을 향한 하늘의 규칙을 명시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롬 13:1).
- ‘권세’의 진짜 뜻은 합법적인 재판권과 통치 권력<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엑수시아>을 뜻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권력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치가 묶여 있습니다. 질서를 파수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우주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파수꾼의 바른 품격입니다 (롬 13:2).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 어둠의 누더기를 벗겨내는 빛의 전신갑주

- 바울은 어두운 제국 한복판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촉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선포하십니다 (롬 13:12).
- '입자'의 진짜 뜻은 '옷 속에 몸을 완벽하게 집어넣어 빈틈없이 밀착시키다' <엔듀오>입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나쁜 습관들, 즉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싸움과 시기라는 어둠의 누더기 옷을 단호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롬 13:13).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영적 무장을 갖추는 때 (롬 13:14), 마귀가 우리 가정에 박아놓았던 모든 생활의 나쁜 기지들은 흔적도 없이 파괴됩니다.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법

칙과 성령 안의 진짜 하나님 나라

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과 아름다운 조화

(1) 내게 주신 신성한 주권의 분량

-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지체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선포하십니다(롬 12:3).
- ‘믿음의 분량’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각 가문과 성도에게 합법적으로 나누어주신 ‘영적인 측정 값’ <메트론 피스테오스>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내 분량을 넘어선 교만의 ante나를 쫓는 것은 마귀에게 고발할 빌미를 주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 서로 정확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은사 발동

-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의 맥을 명시하십니다(롬 12:6).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분수대로'의 진짜 뜻은 '정확한 비율과 상호 조화' <아날로기아>를 뜻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듯 (롬 12:4), 내게 주신 가문의 영적 분량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교회의 몸에 접지될 때, 은사는 가문을 복되게 세우는 거룩한 설계도가 됩니다.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한 진짜 하나님 나라

(1) 본질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비판의 파쇄

-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와 날짜를 지키는 문제로 신성한 신자들이 서로를 정죄하던 갈등 사건을 다룹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4:3).
- 마귀는 항상 집안과 교회 속에 본질이 아닌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접지선을 흔들어 분열의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롬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2)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 바울은 복음이 가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며 영맥을 인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선언하십니다 (롬 14:17).
- 하나님 나라<바실레아>는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의 조건에 묶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적 자기장을 내 안방에 구축할 때, 가문을 짓누르던 모든 가난과 눈물, 다툼의 기류는 원천 차단됩니다.

3. 파수꾼의 영적 적응과 실전 선포: 세상의 거꾸집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가. 내 몸을 제단에 바치는 실제 생활 예배의 접지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명령 앞에 내 온 삶의 사용권을 전격 수정해야 합니다 (롬 12:1). 세상의 유행과 정욕을 좇아 살던 모든 세상 거꾸집의 플러그를 단호히 뽑아버리십시오 (롬 12:2).
-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옛 조상들의 생활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관습을 십자가에 물어버리고, 내 눈과 입술, 손과 발을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로 매일 아침 제단 위에 제물로 던지십시오.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예배 처소로 리모델링될 때, 집안을 흐르던 모든 불행의 사이클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나. 빛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녀의 권세 선포

-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하신 사령관의 명령을 입술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롬 13:12). 음란과 정욕을 도모하던 육신의 안테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온몸에 밀착시켜 접지해야 합니다 (롬 13:14).
-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현실의 결핍에 갇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마귀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롬 14:17).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고착될 때,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는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위대한 경건의 명문 가문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몸의 사용권을 여전히 이 세대의 타락한 거꾸집 <스키마>에 내어준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롬 12:2)
- 내 가문과 삶의 안방에 시기와 다툼, 방탕과 음란이라는 어둠의 누더기 옷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나요? (롬 13:13)
- 내 심령과 가정의 기류가 먹고 마시는 세상 문제를 넘어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나요? (롬 14:17)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이 세대의 풍조와 탐욕을 복사해 내던 모든 타락한 거꾸집<스키마>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파쇄되었다!" (롬 12:2)
-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음란과 시기의 어둠의 옷은 벗겨졌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롬 13:14)
- "우리 가정은 먹고 마시는 결핍의 노예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일지이다!" (롬 14:17)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파수꾼의 기도]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의 거대한 은혜를 받고도 내 몸의 사용권을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유행의 거푸집에 내어주었던 게으른 영적 타성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롬 12:2). 내 육신의 안락을 도모하던 모든 불법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이 시간 내 온몸과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전격 봉헌합니다 (롬 12:1). 가문을 흐르던 방탕과 술 취함, 시기와 분쟁의 어둠의 옷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벗겨내고 오직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전신갑주로 내 영혼을 무장합니다 (롬 13:12, 롬 13:14).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며 원수에게 틈을 주었던 무지를 끊어내오니, 우리 가정의 안방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발행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기장만 가동되게 하옵소서 (롬 14:17). 그리하여 우리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 내는 거룩한 명문 가문의 리모델링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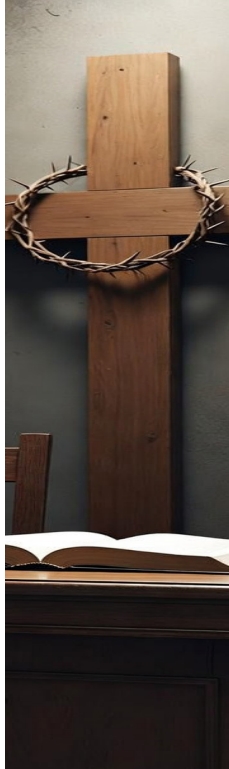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 10 장

/

하나님의 명문 가문

제10장 하나님의 명문 가문

도입내용

로마서라는 이 거대하고 엄청난 복음의 마스터플랜은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15장과 16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줍니다. 제국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품속에 로마서를 숨겨 날랐던 뵈뵈 집사로부터,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름은 마귀의 진영을 무너뜨린 거룩한 영적 성벽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최종적인 승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 혼자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삶과 자녀들을 거룩한 선교의 유산으로 드려 하나님 나라의 명문 동역자 가문으로 영원히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롬 16:1-4)

1. 말씀과 단어의 진짜 뜻: 일루리곤의 개척과 뵈뵈의 비밀 편지 배달 사건

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 채운 발걸음과 서바나의 땅끝 비전

(1)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채운 영적

[롬 16:1-4]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 희에게 천거하노니 너 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경계선

-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15:19).
- '편만하게 전하였노라'의 진짜 뜻은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복음의 진리로 빈틈없이 가득 채워 완료했다' <플레로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당시 거친 사람들이 살던 땅인 일루리곤(지금의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마귀가 지배하던 영토의 빗장을 꺾고 복음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 어버렸습니다.

(2) 당대의 땅끝 서바나를 향해 멈추지 않는 전진

-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더 먼 땅끝으로 가기 위한 선교의 기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선포하십니다 (롬 15:23).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5:19] 이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 '서바냐(지금의 스페인)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지구 끝나는 지점이라고 믿었던 거대한 '땅끝'에 페케이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잘 닦아 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롬 15:20), 복음이 닿지 않은 거친 땅을 향해 목숨 걸고 전진하는 바울의 비전은, 우리 집안의 영적 지경을 끝없이 넓혀가는 파수꾼의 당당한 거룩한 야성의 모형입니다.

[롬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 교회의 전권 대행자 뵈뵈와 목숨을 걸고 사도를 도운 브리스가 부부

(1) 위험한 길을 뚫고 로마서 편지를 배달한 여인

-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이 위대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한 소중한 인물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6:1).
- '일군'의 진짜 뜻은 단순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넘어, 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합법적인 대행자'<디아코노스>를 뜻합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던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로마 제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뵈뵈는 거친 바닷길과 황제의 검문소를 뚫고 품속에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천국의 밀서를 숨겨 배달한 위대한 '보호자' <프로스타티스>였습니다 (롬 16:2).

[롬 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2)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부부

-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위대한 동역의 확실한 팩트를 보여주십니다 (롬 16:3-4).

[롬 16:3-4]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의 진짜 뜻은 옛날 사형대의 작두날 위에 '자신의 목을 합법적으로 밀어 넣어 대신 목숨을 지불했다' <트라켈론 휘페테칸>는 의미입니다. 브리스길라 <프리스카>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재정과 목숨이라는 모든 플러그를 사도의 선교 사역에 완벽하게 접지시켰습니다. 이 거룩한 헌신의 결과로 이들의 가문은 마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2.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비밀

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속전속결의 판결

(1) 원수의 목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하늘의 심판

-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영적 전쟁의 결론을 선포하며 마귀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16:20).
- '상하게 하시리라'의 진짜 뜻은 단순히 살짝 상처를 입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뼈를 완전히 으스러뜨려 박살을 내다', '진흙 그릇을 망치로 내리쳐 형체도 없이 부수어버리다' <신티리보>라는 엄청난 뜻입니다.

(2) 머뭇거림 없이 임하는 보좌의 심판 판결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엔 타케이>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성도들의 발밑에서 박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대대로 괴롭히며 저주를 청구하던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에, 영적 파수꾼이 이 권세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즉시 마귀의 모든 진영은 박살 나고 추방당합니다.

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숨겨두셨던 구원의 마스터플랜

(1) 영원한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계획

-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선언하십니다 (롬 16:25-26).
- ‘감추었다가’의 진짜 뜻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 깊은 곳에 극비 사항으로 ‘완벽하게 침묵 속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세시게메누>을 뜻합니다.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2)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 이 위대한 비밀의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습니다 (롬 16:26). 가문의 구원과 명문 가문으로의 대 전환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영세 전

[롬 16:26]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던 거대한 구속사의 비밀<미스테리온>이 오늘날 내 삶을 통해 찬란하게 폭발한 사건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결론을 내리십니다 (롬 16:27).

[롬 16: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3. 파수꾼의 영적 적용과 실전 선포: 선교의 비전에 내 인생을 걸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라

가. 내 안일함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땅끝 선교의 결단

-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의 능력을 편만하게 채웠던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 지경은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롬 15:19).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인간적인 안일함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십시오.
-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던 그 영적 야성을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위대한 유산으로 전수해야 합니다 (롬 15:23). 내 삶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 지경을 넓히는 거룩한 기지로 하나님 앞에 딱 접지할 때, 우리 집안을 가로막던 모든 영적 묶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 내는 발밑의 주권 집행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최종 승리의 판결문을 대적을 향해 들이대며 원수의 문을 짓밟으십시오 (롬 16:20). 뱀뱀처럼 복음의 편지를 나르는 자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의 지분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진짜 동역자의 가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롬 16:1, 롬 16:4).
- 영세 전부터 나를 위해 감추어 두셨던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비밀이 내 입술의 말씀을 통해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 선포될 때 (롬 16:25),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의 성벽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복음의 능력을 나 한 사람의 안위 속에 가둔 채,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서바나 선교 비전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롬 15:23)
- 뱀뱀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뱀뱀을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되었으며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사역을 위해 내 목숨과 재정의 플러그를 기꺼이
바칠 야성이 있나요? (롬 16:4)

-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발아래서 마귀의 뼈를 완전히 박살 내실<쉰트리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나요? (롬 16:20)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가문의 영토를 가로막고 속이던 사단의 모든 대가리는 이 시간 내 발아래서 완전히 박살 날지 어대!” (롬 16:20)
-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은 땅끝까지 복음의 진액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교적 명문 가문이 되었도대!” (롬 15:19)
- “영세 전부터 숨겨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정의 안방 위에 찬란하게 폭발하였음을 선포한다!” (롬 16:25)

[파수꾼의 기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안일함에 빠져 땅끝을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 되었으며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잃어버렸던 영적 나태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롬 15:23). 내 안위와 인본주의적 계산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의 자기장을 가득 채웠던 사도 바울의 선교적 야성에 내 온 삶을 접지합니다 (롬 15:19). 복음의 밀서를 목숨 걸고 날랐던 뱀뱀처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처형대 위에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롬 16:1, 롬 16:4),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성벽으로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 집안을 대대로 참소하던 사단의 머리뼈를 이 시간 내 발밑에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롬 16:20). 영세 전부터 나를 위해 감추어 두셨던 초자연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 자녀와 후대 천 대까지 마르지 않는 영광의 유산으로 풍성히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사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뱀뱀을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영맥풀이

초판 발행 2016. 7. 2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 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최강책!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참영성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서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매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대외협력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USA
University of Hartford, USA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USA
Ph.D.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SA